

천장 뚫린 방음터널...시민 '뚜껑 열리게' 한 광주시

신창지구 제2순환도로 '20년 숙원' 방음 공사 주민 반발로 중단돼 "착공 전 설명회에서 개방 공간 의도적으로 숨겨...시민 우롱한 것" 시 "예산 부족 탓...소음·대기질 법적 기준 못 미치면 대책 찾겠다"

광주시가 소음 민원을 해결하려고 설치한 소음저감시설(방음터널)이 되레 소음·분진 발생 피해를 키우고 있다.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방음터널 윗부분을 일부 개방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방음' 역할을 제대로 못해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제2순환도로(신창·수완지구) 주변 아파트 주민의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방음터널 공사를 시작했다.

방음터널은 1840m에 달하는 '장대 터널(1km 이상)'로, 1구간 477m, 2구간 751m, 3구간 612m로 이뤄졌다.

총사업비 491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그동안 심각한 소음·분진 피해 등을 겪어온 인근 시민들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터널 캐노피(Canopy·덮개) 일부가 개방된 채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1구간 공사 자체가 지난 6월부터 중단됐다.

광주도심 내 다른 방음터널이나 타 시·도 장대 터널 가운데 '캐노피 개방 구간'이 있는 터널은 '신창·수완지구 터널'이 유일하다.

터널 윗부분이 뚫린 터널 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도 오히려 방음터널 공사 전보다 소음이 심해졌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캐노피의 규모는 길이 30m, 폭 12m로, 1구간 시·종점에 각각 하나씩 설치돼 있으며 인근 아파트와는 22m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이 캐노피가 소음 갈때기가 돼 공음이 들리고 각종 분진이 뿜어져 나온다고 주장한다.

광주시는 추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보완공사를 주저하고 있다.

현재 방음터널 전체를 막으면 1구간에만 80억~90억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22년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교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해당 방음터널 전체를 막으면 기존 시설 등급이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돼 소와·경보·피난 대피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주민들 사이에선 광주시가 해당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캐노피 개방 공간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등도 나온다.

이회숙 신창 6차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광주시가 입주 20년 동안 기다려온 숙원 사업인 방음터널을 만들어준다고 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방음이 되지 않는 터널을 만들고 있다"면서 "캐노피 개방 구간 인근 주민들은 이전보다 더 심한 소음 및 분진 피해를 겪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소장은 특히 "공사 착공 전 캐노피 일부가 개방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몇 년째 희망 고문만 시키고, 이제는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투쟁까지 해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6년 타당성 조사 때부터 기본 설계가 진행됐다"면서 "설계한 시기가 오래돼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담당자가 주민들에게 캐노피 개방 구간 언급을 자세히 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음터널에 대한 소음도·대기질 측정은 한 뒤 법적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측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신창·수완지구)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설치한 방음터널 캐노피(덮개) 중 일부가 뚫려 있어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제2순환도로(신창·수완지구) 방음터널 캐노피 개방 구간.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으로 만나 민원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강춘환 신창6차 호반베르디움 동 대표 회장은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있는 기관인데 광주시는 시민 편의보다 예산만 아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소음도·대기질 측정 후 명확한 계획 등

을 주민과 논의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소통조차 하지 않다가 갑자기 '주민 탓'을 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무안공항, 지난해 조류충돌 '인천공항의 10배'

운항 1만회당 22.23건 발생

무안공항의 지난해 1만 운항당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공항의 1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안공항 측이 사전에 조류충돌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험성과 맞지 않는 관리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형업(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는 지난해 운항 1만회당 22.23회의 조류충돌이 발생했다.

지난해 전국 15개 국내 공항 1만회당 조류 충돌 평균 발생 건수는 3.93건으로 무안에 이어 사천(17.09건), 군산(9.85건), 김해(5.59건), 광주(5.16건) 순이었다.

무안공항은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의 조류충돌이 발생하면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 열린 '무안국제공항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에서 "복행(착륙하려고 내려오면 비행기가 착륙을 중지하고 다시 날아오름) 시 해변 쪽에서 조류 출몰이 종종 발생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조류퇴치가 가능하냐"는 문의에 관리주체인 남부공항서비스는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고 원거리까지 확성기 소리가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류충돌 예방대책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안공항은 매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

립하며 조류충돌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류충돌 위험관리 책임자로 2명만 지정했다"면서 "이 중 한명은 실무경력도 전무하며 교육도 받지 않은 인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시간대별 조류충돌의 77.7%가 밤 9시부터 오전 9시 사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에는 2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야간에는 1명만 배치하는 '거꾸로 대책'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조류 퇴치 탄약 사용이 하루에 3.5발에 그쳤던 반면 조류 포획 실적은 한해 9876마리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 의원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부실한 조류충돌 예방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저 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공사장 인근 '기우뚱 건물' 위험

안전진단 E등급...남구, 방림동 현장 차도·인도 통행 제한

건물 전도 우려 신고가 접수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노후 상가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 결과 붕괴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남구는 "방림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한 노후 건물이 기울어 철거가 필요하다는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이 나와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6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해 12월 "건물이 기울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도시철도본부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내렸다.

진단 결과 해당 건물의 기울기(0.54도→1.64도 수준) 안전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상 건축물 안전등급을 5개 등급(A~E)으로 나누고 있는데, D·E등급을 받은 건물은 붕괴 위험이 큰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긴급 보강 또는 철거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남구는 해당 건물이 준공 이후 39년이 지나 노후화한데 가까운 곳에서 지하철 역사 출입구 공사가 이뤄지면서 건축물의 안전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구는 주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고 우회로를 마련하고, 이날 말 정밀안전진단 최종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해체 및 개축 등의 행정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장해원 기자 hey1@kwangju.co.kr

"극우 유튜버 5·18민주광장 집회 불허"

강기정 광주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6일 "5·18 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며 "일부 단체의 집회 사용(2월 4일자 광주일보 7면)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 유튜버 안전권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해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시장은 해당 유튜버를 두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하고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내란 동조자이자 반민주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 공간에서 집회할 수 없다. 민주 시민에게 맞아 죽는다"고 덧붙였다.

유튜버 안전권씨는 오는 8~9일과 15~16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광주시에 광장 사용을 문의한 상태다.

집회 신고는 통상 경찰에 하지만 광장에서 하려면 각 지자체의 사용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안시 측은 광장 인근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개인 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도 오는 15일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하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주말까지 눈 20cm

나흘째 눈이 내린 광주·전남지역에 주말까지 최대 20cm 이상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새벽을 기점으로 광주와 나주·담양 등 전남 14개 지역에 대설예비특보를 발표했다. 기상청은 북서풍을 타고 남하하는 기압골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광주·전남 5~20cm, 전

남 동부 남해안은 1~5cm다. 7일 오후부터 대륙고기압이 다시 확장함에 따라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5cm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이다. 대기불안정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기압골 전면에서 불어오는 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소폭 상승해 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0도에 머물겠지만,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영하 4도,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영하 3도로 다시 뚝 떨어지겠다.

/장해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	
	수시	정시
인문사회	30	5
신학과	1	1
한국어교육학과	24	5
복지상담융합학부	8	2
사범	8	2
예능	21	8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84	21
총 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민음이 있는 대학 · 민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